

시론

정교분리, 정부와 교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원리



김영택 목사
삼성교회

정교분리(政教分離)는 종종 종교를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려는 세속주의적 원리로 오해되곤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정교분리는 종교를 배제하기 위한 장치도 아니며, 오히려 종교의 자유와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형성되어 왔다.

정교분리는 흔히 교회에 요구되는 원칙으로 이해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는 교회와 국가 모두에게 동시에 요청된 공적 규범이다. 정교분리는 종교를 사회에서 제거하기 위한 장치도 아니며, 교회가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다. 오히려 정교분리는 정부와 교회가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공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상호 제한의 원리다.

한국 사회에서 국가가 정교분리를 오해하는 가장 흔한 방식은 종교를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려는 태도다. 공공정책이나 사회적 논의에서 종교적 언어가 등장하면 곧바로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곤 한

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정교분리를 종교 중립이 아니라 종교 제거로 오인한 결과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는 국가가 특정종교 내지 종교적 세계관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지, 종교적 신념을 가진 시민의 공적 발언을 제한하라는 뜻은 아니다. 정부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시민의 공적 발언과 사회 참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종교를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념이 공존할 수 있는 공정한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반대로 교회의 관점에서 정교분리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영적 기준이다. 교회는 정치권력과 결합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유혹을 끊임 없이 받아왔다.

그러나 교회가 국가 권력에 의존할수록 복음은 왜곡되고 신앙은 이념화된다. 정교분리는 교회가 특정 정당이나 정책의 후원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도록 요구하며, 대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조율적 기준으로 선포하도록 부른다. 교회의 공적 발언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 언어가 아니라, 양심을 일깨우는 예언적 언어여야 한다.

문제는 정교분리를 정부의 통제 논리와 교회의 회피 논리로 각각 오용할 때 발생한다. 정부가 정교분리를 명분으로 종교의 사회적 발언을 억제할 경우, 이는 종교 자유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교회가 정교

분리를 이유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다면, 교회는 공적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 정교분리는 침묵이나 배제가 아니라, 책임 있는 발언과 절제된 참여를 요청한다.

정교분리는 정부와 교회 사이에 긴장을 제거하는 원리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긴장을 유지하게 하는 제도적 지혜다. 정부는 교회로부터 도덕적 비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교회는 정부를 대체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불의에 대해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 이 상호 긴장은 민주 사회의 성숙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정교분리는 어느 한쪽의 승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정부가 종교를 억압하지 않을 자유이자, 교회가 권력에 종속되지 않을 자유다. 정부는 종교를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하며, 교회는 정치권력을 복음의 내안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정교분리는 이 두 유혹을 동시에 제어하는 공적 약속이다.

결국 정교분리는 정부와 교회가 서로를 배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원리가 아니라, 각자의 한계를 인정하고 공동선을 위해 책임 있게 서로를 요구하는 원리다. 이 원리가 살아 있을 때, 국가는 권력의 절제를 배우고, 교회는 복음의 신뢰를 회복하며, 사회는 더 건강한 공적 공간을 갖게 될 것이다.

칼럼

겨울철 향기(香氣)



최부수 목사
고천교회 협동

과도 있습니다.

과거 유럽에서는 겨울에 가족을 집 안에 들였습니다. 이유는 가족을 보호하는 한편 동물들의 체온으로 실내 온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추위로 환기를 자주 못 하기에 집 안이 온갖 불쾌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약취가 불쾌함을 넘어 질병의 원인이라며 환기를 수시로 하고 더불어 오렌지 껍질과 몰약 그리고 계피를 태우라고 권했습니다. 오렌지껍질을 태우면 상큼한 ‘시트러스 오일’(Citrus Oil)이 빠르게 퍼져, 약취를 잡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세 수도원에서는 유향·몰약·정향·소나무 수지를 섞어 피워 공기를 정화하여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도 안정시켰습니다. 당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향기를 통하여 치유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이런 향들은 약취의 근원인 미생물을 억제하고 분해하는 힘이 있습니다.

‘향유’는 개역개정판 구약성경에 무려 300회 이상 나오고, 신약에는 20회 이상 나옵니다. 유향을 피워 올리는 것은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상징합니다(시 141:2). 마리아는 비싼 향유(Perfume)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요 12:3). 바울은 “그리스도의 개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 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고후 2:14-15 새번역)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복음의 향기 곧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깊은 만남과 연합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증거입니다. 곧 자신을 죽이고 예수로 사는 믿을,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보는 사랑의 삶입니다. 지금은 겨울입니다. ‘선제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처럼 계절적인 겨울과 더불어 영적 겨울이 깊어 질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위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 기도하며 도전(Challenge)할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짙어집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좋은 영향을 주듯, 그리스도의 향기는 머무는 곳에 선한 영향력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과 더불어 동물들도 겨울이 되면 대부분 실내(동굴)에서 보냅니다. 이는 실내나 동굴은 따뜻한 날씨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난방 시스템도 스마트하게 발달하여 실내에 따뜻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 저체온증이나 동상과 같은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함께 실내에 있다 보면 공기가 탁해져 약취가 나게 됩니다. 겨울에 북유럽 도시의 시장은 오렌지와 계피가 섞인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행인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고 합니다. 이는 연말 분위기를 내려고 뿌린 게 아니고 춥고 긴 겨울을 견디기 위한 생존의 지혜이자 신앙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이런 천연향기는 건강에 좋다는 연구결

社說

정교분리(政教分離)의 원칙

대한민국헌법은 제20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이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보장하며, 이는 신앙의 자유내심의 자유, 종교적 행위·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라 해도 사회적 질서를 위해 법률로 제한될 수 있으며(헌법 제37조 2항), 이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목적을 위해서이다. 한편, 대한민국헌법은 제20조 제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여 정교분리 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이는 정치권력이 종교를 이용하거나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고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행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은 정치인의 종교 이용, 종교단체의 조직적 정치개입을 금지하며, 위반 시 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21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의 질문에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면 현재 문제 된 통일교의 정치 자금지원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통일교나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하는 일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게 되면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헌법에 정교분리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종교법인이나 집단을 제재하거나 해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정치적으로 선거법 위반이나 명백한 위법 여지가 있다면 사안별로 법원에 위법 되면 법에 따라서 제재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종단 전체를 제약하려는 입법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유발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교분리(政教分離)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 제도적으로는 국가정부와 종교단체(교회)의 분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정치가 종교에 종속될 수 없고, 종교가 정치에 종속될 수 없다. 종교가 정부를 지배할 수 없고, 정부가 종교를 짓밟을 수 없는 정부와 종교단체의 분리를 주장하는 정치 이념이다. 근대국가들은 정교분리 원칙을 국가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그 실행은 차이가 있다. 그 유형을 보면, 먼저 국가와 종교 교단이 분리되어 있는 유형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아일랜드, 대한민국 등이다. 또한 유형은 공공부문에서 일체의 종교 활동을 배제하는 형태다.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는 프랑스다. 또 다른 유형은 정치적 권위와 종교적 권위를 분리하고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결합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교조약(concordat)을 체결하여 상호관계를 처리하는 형태다.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는 이탈리아, 폴란드 등이 있다.

성결교회(당시:조선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는 일제 총독제 시대 민족적인 자존심과 독립운동에 대한 지지를 보냄으로 총독부의 감시와 압박을 받게 되었고, 일제는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고 식민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종교적인 활동을 강력히 통제하였다. 특별히 성결교단의 사중복음(四重福音) 교리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신앙 중에 예수 재림 신앙의 문제로 일제 총독부가 종교단체 총합, 정비 정책과 신사 참배, 황국신민화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단이 해체되는 고난을 겪은 적이 있다(1943년 9월).

그러므로 정교분리의 원칙은 ‘정치와 종교’나, ‘종교의 정치화’를 방지하는 방향에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신문사

등록번호 서울 다 50663(2003년 9월 17일 창간 /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을 준수합니다.

발행인 홍사진 사장 김충현 편집인 권순달 후원회장 박근주 인쇄인 배성한 (주)성경신문사 03026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왕사로 1가길 11(행정동 1-29 총회회관)
대표전화 070-7132-0091~5 홈페이지 www.sknews.org
광고 신청 안내 070-7132-0091 독자기고·제보 sknews12@daum.net

● 구독료 : 1개월 4,400원 / 1년 44,000원(VAT 포함)
● 후원·입금계좌 : 국민은행 533301-01-16871 4 (주식회사 성경신문사)

온라인에서 만나는 성경신문

http://sknews.org

- 중요한 행사나 회의는 당일 기사가 업데이트 됩니다. 2주 동안 소식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 지면에 실지 못한 기사나 사진이 풍부하게 남겨 있습니다. 지면에 다 실지 못한 기사나 취재 후기가 그밖에 현장감을 실린 다양한 사진이 제공됩니다.
- 독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기사에 대한 댓글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원하는 기사의 스크랩이 가능합니다. 보관하고 싶은 기사는 따로 즐겨찾기에 추가 할 필요 없이 바로 스크랩이 가능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기사를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 내에서 원하는 기사를 선택, 상대방에게 직접 메일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증이신분과 꼭 같은 형태의 신문(PDF 서비스)이 제공됩니다. 해외에서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종이신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과거에 발행된 신문은 오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07년부터 제공되고 있습니다. 처음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성경신문은 성결교회를 이끄는 기독교 언론기관으로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신앙과 목회를 돕고자 문광부에 등록된 교단기관지입니다

이단문제

이제, **핵심을 꿰뚫는 이단세미나** 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난다.

정장면 박사의 이단세미나

- 안상홍증인회와 3년 3개월에 걸친 실제 법정이야기
- 이단의 계보를 통한 시대적 특징과 발생원인
- 이단의 빠지는 이유와 문제점
- 성경해석 방법과 요한계시록의 바른 이해
- 주요 이단들의 교리와 특징
- 이단 예방과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현,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이단과타종교」 강의)

세미나 신청 & 문의 010.8200.2693
모든 공 예배시 꼭 필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